

■ 데일리안 대구경북 3월 3일

<대구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본격화외국인주민 100여명 다문화정착 지도자 육성 등 실질적 지원체계>

대구광역시시는 지역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컬러풀 대구’를 구현하고자 올해 4개 분야 89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지난해 12월 내외국인 재매결연 문화탐방 행사에서 부산아쿠아리움을 찾은 모습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외국인주민들의 조기정착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등지에 외국인주민 한글교실 개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 100여명의 외국인주민을 다문화정착 지도자로 육성해 외국인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내국인의 다문화 이해를 향상시키고 저소득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 부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담당케 할 예정이다.

다문화 지역공동체 협력기반을 조성을 위해 내·외국인가정 자매결연 24세대, 친정엄마 맺기 100여쌍 등 내·외국인주민 상호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달서구지역의 성서복지관내에 다문화가정 도서관을 운영해 문화적 편의를 제공하고 남구, 서구, 달서구 등 기존 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달성군을 추가해 4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다문화 축제와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시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2만2822명에 이르는 외국인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다문화 이해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